“사람으로 잇는 불교, 공동체로 잇는 신행”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⑥

인터뷰 |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

‘힙불교’ 넘어 지속가능 포교시스템 필요
체험형 프로그램 · 소그룹 · 멘토링 구축
생활불교, ‘함께 살아가는 불교’로 전환
“미래세대 포교 사업, 반드시 투자해야”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불교에 호기심을 갖고 입문한 초심자들이 신행인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으로 연결돼야 지속가능하다”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힙(Hip)불교’. 엄숙했던 불교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불교박람회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등은 MZ세대의 발길을 사찰로 이끌며 불교에 대한 새로운 호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 호감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관심과 신행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과제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7월 7일 현대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화는 불교로 들어오는 입구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수행”이라며 “좋은 첫인상을 통해 형성된 호감을 관심과 신행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생활불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르치는 불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불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체험형 프로그램과 공동체 중심의 신행 문화를 한국불교 포교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

Q 젊은 세대의 불교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불교를 향한 젊은 세대의 관심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공간을 찾습니다. 불교는 종교 이전에 명상과 치유, 성찰의 문화로 다가가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이것도 불교였나”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호감을 관심으로, 관심을 신행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포교 핵심입니다.

Q 문화를 통해 불교를 만나는 시대, 포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참선이나 절을 권하면 청년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먼저 ‘불교는 즐겁다’는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연과 전시, 음악, 문화 콘텐츠는 불교와 친해지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문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문화는 입구이고 수행은 목적입니다. 문화적 경험이 사찰 방문으로 이어지고, 스님과 도반을 만나 수행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신행이 시작됩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나 군종교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넓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호감을 신행으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미래세대 포교는 사찰의 실천과 종단의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구 동화사는 올해 6월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며 미래세대 포교에 모범을 보였다.



포교부는 미래세대 포교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7월 19일에 열린 부산 · 경남 결집대회 모습.



포교부는 올해 4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출가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출가 부스 운영진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포교부

Q ‘호감’이 지속적인 관심과 신행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씨앗을 뿌렸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재정, 그리고 종단과 사찰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종단이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도 사찰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동화사는 올해 처음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법회에 161명이 참여했고, 현재 단체 대화방에는 3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오면 부모도 함께 오기에 실질적인 인원은 500명 이상입니다. 사찰이 적극적으로 법회를 운영하면 포교부는 법요집과 어린이 법회 음악 콘텐츠 등을 지원합니다. 사찰의 실천과 종단의 지원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Q ‘생활불교’ 정착을 위해 포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불교는 일상에서 계율·간경·염불·참선·보살행인 5대 수행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교부에서는 이 중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조계사에서는 ‘결계포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님들의 수행문화였던 포살을 재가불자들도 정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체험형 프로그램과 신행단체 활동을 연결해 신행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불교의 핵심은 ‘가르치는 불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입니다.

Q 초심자와 청년층이 신행인으로 정착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처음 찾은 사찰에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인연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찰에서는 새로 온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단에서는 새신도 지침서와 5대 수행법, 신도증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도증을 갖게 되면 사찰 소속감, 불자의 자긍심을 지니게 되면서 자발적인 신행으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신행은 결국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이어지기에 소그룹·멘토링처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Q 지역 사찰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포교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 사찰에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밀양 사찰의 경우 작은 도시라 법회 참석 인원은 많지 않지만 신심은 매우 깊습니다. 통도사의 단계별 불교대학, 범어사의 세대별 멘토링처럼 각 도량의 특색을 살린 모델을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종단에서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Q 온라인 포교와 오프라인 신행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불교를 접한 사람들이 사찰에서 수행과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포교부에서는 모바일 신도증 등 디지털 기반 신행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일상과 신행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포교가 가능합니다.

Q ‘호감–관심–신행–생활불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거창 ‘붓다선원’은 워크어웨이(Workaway)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일정 기간, 하루 3시간 반 정도 노동을 하면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구성원 중 불교를 알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찰음식도 먹고, 스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강의도 듣고, 울력도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는 등 선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심을 가지게 되고, 그 신심이 또 신행으로 이어집니다. 신행이 깊어지면 진정한 불자가 되고, 불자가 되면 더 깊은 신행과 발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잘 이어주는 것입니다.

Q 올 한 해 주력하는 대표 사업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창립 40주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강화와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이번에 부산·경남에서도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열어 미래세대를 위한 포교 기반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한국불교는 미래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은 물론 3D·4D 기술을 활용한 재미와 교육을 함께 담은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흥미로 불교를 만나고, 그 만남이 신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래세대 포교는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30년 뒤 한국불교를 위한 투자라는 마음으로 종단과 사찰, 불자 모두가 함께 원력을 모아야 합니다. 포교부도 그 길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책에 빠지기 좋은 계절, 여름! 더위도 잊게 만들어 줄 불광출판사의 책

고양이와 함께한 사계절의 기록, 전 세계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다!
보경 스님 ‘고양이 에세이 3부작’
영국·독일·스페인 등 14개국 메이저 출판사와 판권 수출 계약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보경 지음 | 권윤주 그림
값 22,000원

고양이를 읽는 시간
보경 지음 | 권윤주 그림
값 22,000원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
보경 지음 | 권윤주 그림
값 22,000원

10년간의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려간 산중 암자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생각하는 스님에게 고양이가 다가와 깨우쳐 준 것들

불교 공부는 어렵지 않다, 원영 스님과 함께라면!
불교가 처음인 사람도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시리즈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지음 | 값 18,000원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지음 | 값 18,000원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지음 | 값 18,000원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지음 | 값 18,000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 등 주요 교리부터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까지 한 권으로 마치는 불교 공부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